

2019년 12월 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트럼프의 무역협상 지연 발언으로 하락 트럼프, “중국과의 무역협상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미 증시 변화 요인: 트럼프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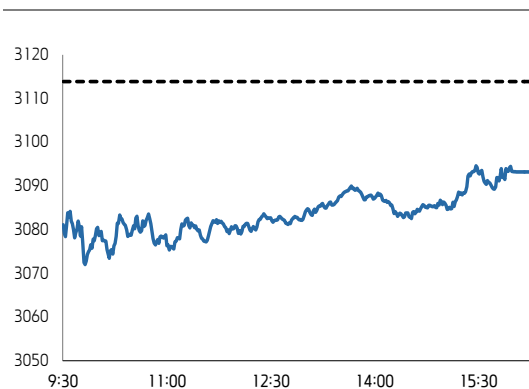
미 증시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발언 여파로 하락 출발. 여기에 EU와의 불공정 무역관계 언급,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 이란에 대한 언급도 투자심리에 악영향. 특히 물류, 반도체, 에너지, 금융주가 하락 주도. 다만 시간이 지나며 특별한 호재성 재료가 없는 가운데 낙폭을 축소하는 등 견고한 흐름은 유지(다우 -1.01%, 나스닥 -0.55%, S&P500 -0.66%, 러셀 2000 -0.31%)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 지연을 언급하자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 기대했던 대면협상에 대해서도 월버 로스는 중국과 대화가 계속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예정된 고위급 회의는 없다고 주장하며 기대를 약화.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 합의는 대선 이후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 불확실성을 더욱 높임. 트럼프는 중국이 합의하고 싶어하지만, 협상 합의는 트럼프 자신이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중국의 추가 양보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 그러나 중국은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기에 미국의 관세 인하 등 양보가 있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마찰이 지속.

더불어 트럼프는 디지털세를 언급하며 EU와 무역적자 문제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그러나 최근 EU 의회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확대를 발표하는 등 온건한 방향으로 전환해 미-EU 간 무역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트럼프도 이날 EU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

한편, 트럼프 발언에 대해 확대해석을 자제하며 미 증시 하락이 확대되지는 않음. 중국과 협상 자체를 폐기할 경우 미국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 더불어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북한에 대한 무력 언급은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협상 기술 중 하나이며, 이란과의 문제도 EU, 중국 등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반대하는 국가들에 경고 이상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는 비록 트럼프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낙폭이 확대되기 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 유입으로 낙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84.07	-0.38	홍콩恒生	26,391.30	-0.20
KOSDAQ	629.58	-0.78	영국	7,158.76	-1.75
DOW	27,502.81	-1.01	독일	12,989.29	+0.19
NASDAQ	8,520.64	-0.55	프랑스	5,727.22	-1.03
S&P 500	3,093.20	-0.66	스페인	9,135.70	-0.22
상하이종합	2,884.70	+0.31	그리스	881.28	-1.31
일본	23,379.81	-0.64	이탈리아	22,736.52	+0.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4% 하락

애플(-1.78%)을 비롯해 유니온퍼시픽(-2.87%), 페덱스(-4.33%) 등 물류회사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하락했다. 마이크론(-2.50%), 퀄컴(-2.27%), 인텔(-2.76%), AMAT(-2.40%), 램리서치(-1.94%) 등 반도체 관련주도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54% 하락했다. 특히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버에 제공하기 위한 자체 칩 버전을 발표하자 서버칩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인텔의 하락이 컸다. 더불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진행되자 3M(-1.84%), 캐터필라(-2.03%) 등 산업재는 물론 메이시스(-3.44%), L브랜드(-4.57%), 노드스트롬(-2.50%), 갭(-3.03%) 등 소매유통업체들도 하락했다. 한편, 코노코필립스(-2.45%), EOG리소스(-2.84%) 등 에너지 업종 또한 부진했다.

한편,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JP모건(-1.29%), BOA(-1.76%), 웰스파고(-1.94%) 등 금융주는 약세를 보였으나 퍼블릭 스토리지(+1.39%), 아메리칸 타워(+0.78%) 등 리츠금융회사 및 넥스트라에너지(+0.42%), 아메리칸 전력(+0.66%) 등 유틸리티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한편, 철강회사인 AK스틸(+4.15%)와 광산업체인 클리블랜드 클리프(-10.70%)가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AK스틸은 강세를 보인 반면 클리블랜드 클리프는 하락했다. 알파벳(+0.46%)은 디지털세 관련 트럼프의 발언으로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62%	대형 가치주 ETF(IVE)	-0.98%
에너지섹터 ETF(OIH)	-2.56%	중형 가치주 ETF(IWS)	-0.71%
소매업체 ETF(XRT)	-1.36%	소형 가치주 ETF(IWN)	-0.52%
금융섹터 ETF(XLF)	-1.40%	대형 성장주 ETF(VUG)	-0.52%
기술섹터 ETF(XLK)	-0.89%	중형 성장주 ETF(IWP)	-0.4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82%	소형 성장주 ETF(IWO)	+0.01%
인터넷업체 ETF(FDN)	-0.17%	배당주 ETF(DVY)	-0.75%
리츠업체 ETF(XLRE)	+0.82%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7%
주택건설업체 ETF(XHB)	-0.7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3%
바이오섹터 ETF(IBB)	+0.59%	미국 국채 ETF(IEF)	+0.89%
헬스케어 ETF(XLV)	-0.22%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62%	물가연동채 ETF(TIP)	+0.62%
반도체 ETF(SMH)	-1.40%	Long/short ETF(BTAL)	+0.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4.81	-1.55%	-3.20%	-5.83%
소재	369.22	-0.67%	-1.34%	-0.99%
산업재	670.19	-1.10%	-3.10%	-2.03%
경기소비재	943.85	-1.01%	-0.91%	-1.40%
필수소비재	634.57	-0.18%	+0.87%	+2.11%
헬스케어	1,141.25	-0.21%	-0.59%	+4.36%
금융	489.21	-1.32%	-1.91%	+0.44%
IT	1,508.54	-0.85%	-1.94%	+1.03%
커뮤니케이션	176.54	-0.08%	-0.33%	+1.49%
유틸리티	317.48	+0.50%	+0.06%	-1.10%
부동산	236.00	+0.74%	+0.28%	-1.6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하락폭 축소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5% MSCI 신흥 지수 ETF 는 0.52%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754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2.30pt 하락한 273.9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9.2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주장하자 글로벌 주식시장은 하락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8 월 중순 이후 한국 증시의 상승 요인 중 하나였던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폐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국 실업률이 3.6%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고용시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팜벨트, 러스트벨트 지역의 실업률은 올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 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가 지속되며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둔화세로 전환하는 등 향후 고용 개선이 지속될 여지가 약화된 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시장 일부에서는 협상의 기술일뿐 실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난 26 일 중국 상무부의 화웨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 언급, 지난 주말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의 추가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등을 감안 일정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 언급 또한 3 일부터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위한 조치일 뿐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일과 같이 낙폭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개선

10 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해 예상(mom 0.0%)을 상회했다. 전년대비로는 1.9% 하락했다.

11 월 영국 건설 PMI 는 전월(44.2)이나 예상(44.5)를 상회한 45.3 으로 발표된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선인 50 을 하회해 건설경기 위축이 진행중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국채금리 큰 폭으로 하락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상승 했다. OPEC 정례회담에서 감산규모를 확대할지, 유지한채 기간을 연장할지를 두고 말들이 이어졌다. JP 모건을 비롯해 일부 투자은행들은 감산규모를 기존의 하루 120 만 배럴에서 150~160 만 배럴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달러화는 무역분쟁이 확산된 여파로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한편, 엔화는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생산자물가지수 개선과 ECB 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다. 파운드화는 12 일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연정 구성에 주목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특히 건설 PMI 등 경제지표 개선도 달러 대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발언 이후 하락 했다. 특히 10 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장중 1.7%를 하회하는 등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트럼프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하락폭을 축소하자 국채금리 또한 낙폭을 축소하며 10 년물은 1.7% 이상으로 올라섰다.

금은 무역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우려가 확산되자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5% 상승 했으나, 철근은 0.33%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6.10	+0.25	-3.29	Dollar Index	97.742	-0.12	-0.52
브렌트유	60.82	-0.16	-3.78	EUR/USD	1.108	+0.01	+0.54
금	1,484.40	+1.03	+1.41	USD/JPY	108.63	-0.32	-0.39
은	17,248	+1.66	+1.28	GBP/USD	1.2994	+0.43	+0.99
알루미늄	1,766.00	-1.34	+0.74	USD/CHF	0.9873	-0.40	-0.97
전기동	5,815.00	-1.16	-1.84	AUD/USD	0.6845	+0.38	+0.84
아연	2,202.00	-1.83	-4.22	USD/CAD	1.3297	-0.08	+0.19
옥수수	381.25	-0.20	+0.13	USD/BRL	4.2048	-0.29	-0.80
밀	525.25	-1.87	-1.45	USD/CNH	7.0686	+0.35	+0.77
대두	871.00	+0.06	-2.41	USD/KRW	1187.20	+0.35	+0.89
커피	123.80	+1.48	+4.12	USD/KRW NDF1M	1189.28	+0.38	+1.41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712	-10.67	-2.92	스페인	0.408	-7.80	+2.20
한국	1.737	+3.70	+3.70	포르투갈	0.360	-9.80	-0.90
일본	-0.022	+2.30	+6.60	그리스	1.530	+3.10	+16.50
독일	-0.348	-6.70	+2.40	이탈리아	1.284	-6.50	+11.70